

---

第7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5年2月21日(火)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1995年度公報官室業務計劃報告의件
  2. 1995年度文化觀光局業務計劃報告의件
  3. 1995年度世宗文化會館業務計劃報告의件
-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 2面

1. 1995年度公報官室業務計劃報告의件 ... 3面
  2. 1995年度文化觀光局業務計劃報告의件 ... 18面
  3. 1995年度世宗文化會館業務計劃報告의件 ... 33面
- 

(10時 10分 開議)

○委員長 李喆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5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第1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다망했던 甲戌年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변화가 要求되는 乙亥年을 맞아서 늘 서울市民과 함께 하시고 市民을 위하여 애쓰시는 委員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소망이 두루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光復50周年을 맞이하는 해로써 統一 韓國의 초석을 다지고 21世紀 초반 先進國 進入을 위한 世界化 推進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본격 地方化時代를 향한 地方自治團體長 선거 등 4大 選舉를 치러야 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委員님들과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은 사명과 책임을 더욱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市民의 기대 속에 再出發한 第3代 서울市議會가 地方化時代 定着을 위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任期 동안에도 우리 委員會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o 報告事項

○委員長 李喆鎬;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議案1係長 具滋善; 議案擔當官室 議案1係長 具滋善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年 2月 3日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學校健康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產管理所條例中改正條例案이 同年 2月 6日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各各 回附되었습니다.

1995年 2月 15日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刊行物審議및普及에關한條例案이 同年 2月16日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1995年 2月 17日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查 是正措置 및 建議事項에 대한 處理結果報告書가 同年 2月 20日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報告事項을 마치겠습니다.

---

## 1. 1995年度公報官室業務計劃報告의件

(10時 13分)

○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 第1項 1995年度 公報官室 業務計劃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公報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申東雨; 業務報告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月 7日字로 公報官으로 發令을 받아서 勤務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私席에서는 委員님들에게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시다만 常任委에서 정식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짧고 또 능력도 부족한 제가 公報官 자리를 맡게 되어서 걱정이 앞섭니다만 여러 委員님들의 따뜻한 指導와 協助 속에서 열심히 해 볼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指導鞭撻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公報官室에 그 동안에 人事異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 發令을 받은 公報1擔當官 姜鍾弼 課長을 먼저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公報1擔當官 姜鍾弼)

그러면 準備한 油印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公報官室 今年度 業務計劃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李喆鎬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을 모시고今年度 저희 公報官室 主要 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公報官室 業務는 비교적 단순합니다만 準備된 油印物을 중심으로 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다.

.....  
(報告)

공보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公報官室의 95年度 主要業務計劃에 대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報告드린 內容은 委員님들께서 보시면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市政弘報事業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委員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指導鞭撻을  
해 주신다면 저희 公報官 職員들은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낌없는 指導鞭撻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公報官의 95年度 業務計劃 報告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吳柳根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吳柳根 委員; 吳柳根 委員입니다. 오늘은 95年度 새해를 맞  
이해서 처음 우리 議會가 開院이 되었고 또 첫번째 맞이하는  
常任委員會가 開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新年度에 새  
로 執行部의 業務計劃을 듣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質疑보  
다도 포괄적인 問題를 意見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昨年度가 저희 나라 首都를 서울로 정한 지 定都600年の 해  
가 지나갔고 아까 우리 委員長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光復50周年의 반세기를 맞이해서 웅비를 펼치는 그런 한 해  
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昨年에 定都600年을 맞이해서 國內  
는 물론이지만 國際적으로도 많은 行事와 또 우리가 서울을

알리는 그런 歴史的인 조명을, 엄청나게 많이 行事를 갖게 되었고, 또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유구한 歴史와 傳統을 거친 5000年の 歴史를 재조명을 하고, 또 古代와 現代가 어우러져 사는 그런 우리 고도의 서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고증을 통한 文化行事와 더불어서 큰 行事를 많이 가졌는데, 물론 部署別로 여러 가지 行事가 있었겠지만 弘報를 맡은 公報官室 立場에서 과연 定都600年の 行事를 어디까지를 綜合的으로 弘報를 해서 거기에서 바탕이 잘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미흡한 점도 있는 부분을 綜合的으로 한번 檢討하고 또 재조명을 해 봐 가지고 하나의 집대성을 통한 새로운 公報官室의 자세를 정립하는 데에도 커다란 里程標가 될 것이다 해서 그런 計劃을 가지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公報官室로서의 어떤 計劃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을 計劃했으면 어떤 方法으로 하고 있으며, 또 없으면 어떤 方法으로 할 計劃을 가지고 있는지를 公報官의 의지를, 또 計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우리 地方化時代를 맞이해서 우리 千百萬 市民의 代議殿堂이고 市民의 代表機構인 議會活動에 委員님들의 活動을 市民新聞이나 서울市廳에서 發行하는 모든 弘報次元에서 議會的 紙面을, 委員님들이 活動하는 紙面을 割愛하겠다는 얘기는 公報官마다 수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議會的 活動이 市民들에게 그렇게 소상하게, 또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을 알리는 데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서울市에서 市政을 執行해 나가는 過程을 弘報한다는 次元을 벗어나서 하나의 市

民의 場이 되는 議會를 통해서 質疑 問答과 또는 새로운 政策을 창출해 내고 또 市民의 意思가 市政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市政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議會의 委員님들의 活動이 좀더 폭넓게, 또 자세하게 弘報가 될 수 있는 것을 어떤 여기에서 計劃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今年度부터는 차근차근히 실천에 옮겨서 市政의 方向과 또 議會의 活動이 하나의 조화로운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公報官께서는 각별히 철저한 公報計劃에 반영시켜 줄 것을 要請하면서 質疑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答辯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一問一答이 좀 벅차면 一括質問하고 答辯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公報官 申東雨;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다른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우리 金寅東 委員님 質問해 주시지요.

○金寅東 委員; 나는 몇 가지 政策的인 指導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건설에 다리 崩壞事件 以後에 있어서 멋진 장면을 하나 봤는데 지금 새로 赴任한 公報官이 브리핑 형식으로 市長을 代身해서 아주 명확하고 또 멋진 브리핑 한 것을 봤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서 느낀 것이 우리가 市政의 弘報 그러면 보통 市長이 나온다는지, 副市長이 나온다는지, 또 어떤 事案에 대해서는 關係局長이 나온다는지 해서 綜合的인 것, 또는 個別的인 것에 대한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설명회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번에 申局長이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 뭔가 先進化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내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問題에 대해서 꼭 市長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民選團體長이 選出이 되고 한다고 할 때에 이런 定例 브리핑制度가 導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實質的인 代辯人은 公報官이기 때문에 公報官이 이것을 擔當해서 處理해야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느냐, 중대한 事項 이것은 市長이 나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一般的으로 즉각적이고 대응적인 그런 側面에서 代辯人이 그런 定例 브리핑을 해서 市民의 의구심이라든지, 또 알고 싶어하는 事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즉각즉각 알려주는 그런 制度는 반드시 必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研究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民選團體長 時代에 副應하는 公報行政이나, 아니면 그대로 任命制 市長下에서의 公報業務를 報告한 것인지 저는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意識이 變化가 안 됐어요. 지금 앞으로 6월이면 엄청난 變化가 옵니다. 왜 變化를 對應을 안합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業務報告에는 民選團體長이 되면서 劃期的으로 變化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도 좀 補完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조금 아까 말씀은 서울시청뉴스, 이 서울시청뉴스를 보니까 그 시청뉴스에서 안 나오는 것을 좀 補完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영어로 하면 서울시청뉴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은 機關의 어떤 서울시廳입니까, 아까 우리 吳柳根 副議長 말씀하셨는데 弘報 잘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청뉴스에 우리 議政報道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서울시廳으로 이렇게 했는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것이? 나

는 不合理的 것 같아요. 이것이 전혀 議會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시廳이면 議會와 關係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 받아볼 때마다 느꼈는데 서울시는 소위 牽制와 均衡의 原理에 따라서 議會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地方自治가 뭐니까, 일정한 地域에 또 住民의 共同體로 나가며, 그리고 選出된 사람하고, 이쪽은 團體長으로 選出된 사람, 이쪽은 議員으로 選出된 사람 두 가지 機能으로 나가는데 그 機能이 複合的으로 作用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돼야 됩니다. 서울시청뉴스 그러면 서울시廳 따로, 의회뉴스 따로 다 따로 돼야 됩니까?

이것도 한번 變化하는 自治時代에 副應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이것이 아마 다시 學論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議政活動報告는 며칠 봤지만, 몇 번 왔습니다. 왔는데, 의회뉴스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것이 자꾸만 意識이 變化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 議會가 제대로 牽制를 안해서 이런 問題가 생겨요. 우리 議會 지도부가 제대로 牽制를 안해서 그래요. 牽制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牽制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어떤 活力을 불어넣어 주고, 잘못된 것은 指摘해서 새롭게 다 變化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機能은 하나도 議會 지도부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경이 됐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公報官이 우리 더군다나 총명하고 능력 있는 公報官이 다시 한 번 잘 檢討해 주시고요.

그리고 歷代 公報官한테도 노상 얘기했지만 弘報物에 대한 綜合調整機能을 公報官室에서 잡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區까지 自治團體 되고 하면 綜合的인 市政弘報의 機能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중



구난방으로 나갈텐데 무엇인가 이것은 統制가 아니라 적어도 綜合調整하는 機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市民 따로, 冠岳市民, 永登浦市民 다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우리가 앞으로 25個 區民이 全體가 하나로 뭉쳐서 서울市民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절묘하게 調整하고 綜合하는 機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마련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앞으로 차기에는 우리가 30年만에 構成된 議會가 그 동안 제 기능을 못해 왔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나 今年부터는 엄청난 變化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市廳의 여러 幹部들께서도 그런 均衡과 牽制 그런 機能이 어떻게 제대로 발휘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市民에게 어떤 福利增進을 시키느냐 이런 問題에 대해서 심심하게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몇 가지 우선 指摘을 했습니다만 이런 時代에 副應하는 그런 業務報告 資料로 다시 補完을 해서 그리고 業務를 推進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네, 鄭一龍 委員 質問해 주세요.

○鄭一龍 委員; 一般現況에 대해서 報告를 받았는데 이것은 國內의 소위 PR資料 같습니다. 우리가 世界化時代에 접해서 적어도 定都600年을 맞이하는 우리 서울시가 海外에 대한 어떤 弘報, 우리가 國際都市로서의 어떤 면모를 海外에다가 弘報해야 하는데 전혀 여기에 보면 海外에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를 弘報할 것이냐, 어떤 觀光次元에서도 그렇고, 과연 國際都市로서 그런 면모를 뭔가 海外에다가 우리가 弘報를 해야 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95年 이라면 서울시 政策의 비전을 적어도 서울시가 아니라 全體 우리 國民에게 뭔가 弘報를 비전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서울시가 뭘 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過去에 했던 이런 하나 무슨 만 들어내는 이것이 주가 아닌 적어도 서울시가 뭘 지금 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政策的인 代案을 가지고 國民들한테 弘報를 하고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海外에도, 또 서울시라는 어떤 이미지를 國際에다가 弘報도 해야 하고, 이 海外 PR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든 首都를 가 보면 그 책자들이 나와서 PR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 과연 우리 서울시는 海外에 그런 弘報를 하고 있는가, 이 資料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뭔가 海外에 우리 서울을 알리기 위해서 弘報를 하는 어떤 對策이 있는가, 또 政策的인 비전을 분명히 뭔가를 弘報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서울市民들이 궁금해 하고, 서울시가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수시로 어떤 신문에만 자꾸 事故 터지고 뭐하고, 도대체 서울시가 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未洽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對策이 있으면 說明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喆鎬; 또 다른 委員 질문 없으시면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答辯해 주세요.

○公報官 申東雨; 公報官이 答辯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吳柳根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첫번째, 昨年에는 定都 600年行事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5000年 歷史를 재조명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에 대한 弘報가 잘 되어 있는데 今年에는 이것을 어떻게 整理해서 새로운 이정표로 삼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指摘이셨습니다.

사실 1994年度는 저희 서울시 定都600年行事가 市政을 알리는데 굉장한 役割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行事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밝은 市政의 弘報가 잘 됐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弘報自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弘報가 될만한 이벤트가 있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다만, 定都600年은 이제 그 事業을 맡았던 部署에서 總整理해서 白書로서 역시 發刊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95年은 定都600年行事는 마무리해서 整理하는 段階가 되기 때문에 저희 公報官室 立場은今年이 光復, 아까 委員님께서도 언급해주셨듯이 光復50周年을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도 이 光復50周年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國政과 市政에 대한 弘報를 펼쳐나갈 것을 저희가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좋은 주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光復50周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報告드린 여러 가지 計劃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는 光復50周年을 삼으면 여러 가지 市政에 대한 밝은 弘報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計劃에 임하고 있습니다. 委員님의 指摘에 따라서 저희가 더욱 組織的으로 이것을 밝은 市政弘報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의정활동 報道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됐다, 결과적으로. 公報官들의 약속과는 달리 잘 안 됐다라는 指摘은 먼저 公報官으로서 사과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委員님께서 보시기에 未洽했다 하면 이것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公報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제 基準에 맞추어서 한 단계 過去보다는 더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直接 弘報手段

이나 言論媒體를 통해서 議政活動이 報道가 되도록 제가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寅東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을 答辯해 올리겠습니다.

동아건설의 브리핑 關聯해서 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가 公報官의 機能에 대해서 약간의 變化를 주고 있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民選市長 體制가 되면 이러한 機能은 더욱 요긴하게 必要할 것으로 저희가 認識을 하고, 가능하면 公報官이 代辯人으로서 市政에 대한 發表文이라든가 이런 것을 市民들에게 직접 言論媒體를 통해서 發表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몇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은 단일 부서에는 비교적 公報官이 業務全體가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고, 弘報를 하기 쉽습니다만 서울시 業務는 사실 國家 政府에 該當하는 機能과 같이 國防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業務를 심도 있게 알아서 公報官이 대변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市の 입장을 代辯하는 총괄적인 것부터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委員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評價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변화는 民選市長 體制에 對備해서 더욱 補完을 해 나가야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렇게 認識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로는 民選 團體長 對備에 대해서 意識의 변화가 없다, 변화에 대응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補完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또한 저희들이 깊이 研究를 하고 補完해야 될 그런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리핑制度도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準備過程이긴 합니다만 民選 團體長 時代를 對備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政治를 하시는 분이 直選을 통해서 市長으로 오시기 때문에 政治機能이 상당히 補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活字化해서 아직 委員님들께 이것을 報告드리기는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言及을 안한 것입니다. 金寅東 委員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에 대한 研究를 더 깊이 해서 準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市廳뉴스에 대한 題號가 타당한 것이냐, 委員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市廳뉴스라는 것은 法的 用語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市民들이 볼 때 弘報的인 의미에서 얼른 와 닿는 用語가 무엇일까 하는 입장에서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市廳이라는 것이 너무 執行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法的으로 接近하시면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저희는 그것을 法的인 用語로 쓴 것이 아니고, 市民들이 볼 때 가슴에 와닿는, 아 이것은 서울市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럴 경우에 무엇이 적절하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指摘하신 바에 따라서 檢討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弘報物 綜合調整機能이 있어야겠다, 弘報物 綜合調整機能은 이미 報告드렸습니다만 市에서 發刊하는 홍보기능이라든가, 市에서 言論을 통해서 하는 弘報는 어느 정도 현재 綜合調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弘報物審議委員會도 構成해서 市 이름으로 發刊이 되는 모든 弘報物의 수준은 과연

적절하냐, 내용은 적절하냐는 것을 저희가 事前에 調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委員님 지적은 이제 各 區가 自治制가 되기 때문에 各 區에 弘報가 衆口難防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로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各 區에 弘報物의 發刊에 있어서도 저희 公報官室에서 전체 서울시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상호 모순됨이 없이 매끄럽게 통일적으로 弘報가 되는 양태를 취할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鄭一龍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계화시대에 접해서 海外弘報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미진하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5페이지를 委員님 봐 주시면 거기에 海外弘報 積極 전개라는 項目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서울시가 海外弘報에 대해서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政府의 기치도 世界化에 있고, 따라서 서울도 市政의 世界化를 또한 저희 기치로 내걸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市政을 海外에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今年度에 우선 計劃한 것이 서울에 駐在하고 있는 外信記者團에 대해서 우리 市政을 알리자 이런 計劃을 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초청해서 서울市政을 한번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市政도 說明드리고 또 市政現場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프레스투어를 한번 企劃을 했고, 기타 說明會라든가 資料를 주기적으로 提供하자는 이런 計劃을 짰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맺고 있는 姊妹 友好都市를 통해서 市政 弘報를 하고, 마지막으로 海外에 나가있는 저희 公務員들이나

또는 政府의 海外公館에 저희 市政弘報資料를 충분히 普及함으로써 海外弘報를 하고자 하는 것이 현 단계의 저희 計劃입니다. 그러나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세계화에 부응해서 저희 市政에 대한 海外弘報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가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答辯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제가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더 質問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綜合有線放送 21個 地域放送局이 3月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公報官 申東雨;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런데 거기 보면 61業體 中 중계가 41, 음악이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3月부터 有線放送을 하게 되면 우리 市에서 弘報關係를 여기다 많이 개입해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지 市에서 하는 모든 일을 弘報할 수 있는 計劃이 서있습니까? 여기는 중계가 41, 음악이 20 이런 比率로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計劃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公報官 申東雨; 지금 委員長님 보시는 바로 그 項目의 중간쯤 보시면 週刊市政, 生活情報 비디오 44편 作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주간뉴스식으로 週刊弘報物을 영상물로 저희가 製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綜合有線放送局에 배포를 해서 放映되도록 하면 週刊別로 저희 市政이 畫面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케이블TV 開局에 대한 대안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하여튼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議政活動 報道 적극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늘 이런 형식적인 用語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놓고 市議會 公報室과 유기적 협조 이래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議政活動 報道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한번 들어봅시다.

○公報官 申東雨; 이것은 첫째로는 우선 저희 市議會에 出入하는 記者분들이 아무래도 평상시 議會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執行部의 業務를 중심으로 해서 報道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議會가 열릴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記者들이 議政活動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記者분들이 議會 열리는 과정에 議會에 건너가서 議員님들께서 議政活動하는 모습을 보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報道할 수 있는 분위기를 公報官이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市議會가 열릴 경우에는 저희 弘報物 같은 것도 자제를 하고, 즉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만 市政弘報物을 배포를 하고 브리핑을 합시다만 議會 열리는 期間 동안에는 이런 情報의 量도 조절을 해서 議政活動 중심으로 지금 報道가 나갈 수 있도록 公報官이 갖고 있는 수단을 활용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또 記者 여러분들께 협조를 要求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제가 생각하기로는 議政活動 期間뿐이 아니고 個別的으로 地域에서나 이런데 記事化시킬 수 있는 善行들을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報道해 줌으로써 日刊紙 記者들의 미처 손발이 모자라서 못했던 것을 이 정도는 정말 日刊紙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선도적으로 우리 公報室에서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質問을 한 것인데



보면 議政活動 적극지원이니 하는 用語는 매번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전에 많은 日刊紙같은 新聞에도 별로 議政活動 期間에 市政質問만 죽 나왔지, 보통 때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배관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委員들의 명함만한은 그러한 行績도 실릴 수가 없게 됐구나 하는 절망감을 이것을 보고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增面을 한다니까 좀더 거기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9페이지에 보면 市民輿論收斂해 가지고 市政反映했는데 면접을 10회라고 했는데 대개 몇 사람의 面接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公報官 申東雨; 이 輿論調査는 저희가 專門要員 3名을 확보해서 運營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調査를 하려면 기본이 아주 적어도 600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몇 % 確率로 맞다 안 맞다 이런 統計的인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方法을 面接을 하든 電話를 하든 統計的인 의미가 있는 調査를 하려면 아주 적은 것이 600名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電話도 600通話, 또 편지도 600통 이렇게 됩니까?

○公報官 申東雨;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알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答辯을 끝내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委員님들의 任期

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개가 그렇듯이 말기적 현상을 피  
부로 느낀다 하는 委員님들의 말씀이 있고 보면 또 本委員도  
그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千百萬 市民의 代辯者로  
끝 시간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에 關係公  
務員 여러분께서도 유념해 주셔서 변함없는 禮遇로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業務計劃 報告를 전부 終結하  
겠습니다.

---

## 2. 1995年度文化觀光局業務計劃報告의件

(11時 02分)

○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 第2項 1995年度 文化觀光局 業務  
計劃 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文化觀光局長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文化觀光局長입니다.

존경하는 李喆鎬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 文化觀光局的 今年  
度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準備된 資料에 의해서 간략하게 今年度 主要業務計劃을 報  
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長時間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文化觀光局의 95年度 業務計劃 報告에 대해서 質疑 하실 委員 계시면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括質疑, 一括答辯을 하겠습니다.

朴善童 委員 質問해 주세요.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觀光振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의 觀光地에서도 言語疏通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로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觀光案内所의 役割은 한계성이 있으므로 가이드를 積極적으로 活用한다면 觀光客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自願奉仕 觀光가이드는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의 教育과 活用은 어떻게 計劃되어 왔으며 效果는 어떠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質問해 주시죠. 金寅東 委員 質問해 주세요.

○金寅東 委員; 政策的인 몇 가지 좀 指針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에 崔秉烈 執行部, 이 執行部가 들어온 이후에 내가 市政質問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工事現場하고 이런 관계만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느 해보다도 業務報告의 內容이 머리는 다 좋은 우리 局長이나 執行部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崔秉烈 市長의 指揮가 부족한 덕분인지 모르지만 아주 이것이 새로운 맛도 없고, 또 진부하고, 또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 없어요. 이것은 局長이나 執行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은 指揮者의 意志가 市政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市는 工事現場이나 가고 무슨 事故나 豫防을 하고 하는 그런 次元이 아니에요, 市長은. 綜合藝術을 다루는 綜合行政의 최고 執行者입니다. 아무나 市長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問題에서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선 여기서 보면 색다른 것도 없을뿐더러 用語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죽 봤는데. 지금 大統領께서 世界化, 世界化 해서 世界化로 用語가 거의 딱 끝나는데 어떻게 서울國際化推進協議會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것 用語 整理하세요.

그리고 市民國際意識이라는 것은 또 뭐니까? 이런 것, 이런 問題에서 우선 用語가 整理가 안 되어 있어요. 用語整理 빨리 하세요. 또 가만히 보니까 世界化되고 國際化된다고 하니까 文化觀光局에서 상당히 外國語를 많이 쓰시는데 내가 죽 한번 봤어요. 대형 이벤트행사, 自願奉仕가이드활용, 또 世界都市와 常時 協力網 네트워크 구축, 여기다 괄호 넣고서 네트워크란 英語가 常時協力網으로 이것이 直譯입니까, 意譯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태여 네트워크같은 것 쓰지 마세요. 다른 方法 많이 있습니다. 세계화마인드, 무슨 네트워크구축방안, 이런 것 글썤 모르겠어요. 우리 世界化라는 것이 영어 많이 쓰는 것이 世界化가 아니고, 우리 韓國的인 것을 어떻게 보다 發展시켜서 一流化하고 이것이 世界化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데 아마 世界化의 目標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業務報告에 비해서 너무 영어표현이 많은데 이것을 조금 整理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世紀 都市文化發展中長期計劃이라고 있어

요. 이것도 21世紀 서울文化發展中長期計劃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都市라는 것이 서울만 都市가 아니고 全國에 수많은 都市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금방 여러분들 아까 무슨 世界化 마인드 했지만 소위 都市化 마인드에 맞는다면 거기에 21世紀 서울文化發展이라고 그래서 바로 가슴에 꽂아주는 식으로 표현해야지, 막연하게 都市文化, 거 어느 都市文化를 갖다가 發展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內容이야 說明이 있겠죠. 그러나 볼 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아마 用役을 지금 주신 모양인데 그 동안에 세미나도 하고 懇談會도 했다고 아까 報告를 받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公聽會를 하세요, 公聽會. 세미나나 이런 것은 懇談會는 이것은 지극히 開催者의 意圖가 너무 강해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감대가 形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公聽會를 하세요. 公聽會를 하신 다음에 用役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보다 效果的인 아니냐, 斯界의 權威者를 불러다가 公聽會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21世紀에 우리 交通, 環境問題, 물問題 이런 여러 가지 問題들을 정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世界的인 都市로 서울을 부상시키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市民의 輿論調查 같은 것 보세요. 나 오늘 처음 이런 것 봤는데 여기 市民들의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 文化局長이 좀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問題, 이 觀光問題 심각해요. 아까 우리 同僚委員 朴善童 委員도 말씀하셨지만 昨年에 우리가 600周年 紀念이다, 무슨 서울방문의 해다 해 가지고 난리를 치렀지만 몇 사람이 나 왔습니까? 목표 미달되었죠? 韓國에 안 온대요, 지금. 왜

안 오느냐, 韓國의 특정한 이미지가 없대요. 한번 우리가 金浦空港에서 서울로 들어와 봅시다. 어디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고, 야, 서울 들어왔구나, 거기 자다가 깸 사람도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만한 사람이 지금 물어봐도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한번 서울을 특성화할 수 있는 거리라도 하나 만드는 이런 文化事業같은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市民들을 좀 깨우쳐주고, 건축가, 또 建設하는 사람, 美術家 動員해 가지고 서울 한 거리라도 서울로 들어올 때에, 過去에 우리 올림픽 때에는 우리 貴賓路라는 칭호까지 있었던 거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에 오면 서울의 특정한 이미지가 없어서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世界는 바로 이미지 競爭時代거든요. 자기 이미지가 부각이 안 되어가지고 무슨 觀光이 됩니까? 무슨 特性이 있어야 오지, 여기 뒤에 背景寫眞 찍어보아야 어디 뉴욕의 중하위 地域에서 찍은 것하고 비슷한 것이고, 또 어디 가서 訪問해서 음식을 먹어보아야 비슷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觀光特性을 살리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構成해야 되는데 지금 觀光오는 사람들 미국사람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선물 사갈 것도 없다는 것이야. 그 전에는 관광공예대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 發展시키세요. 그래서 서울시가 出捐 좀 하세요. 지금 觀光膳物 나도 외국 가서 사 보면 살 때가 없고 기껏해야 보석상자, 무슨 수실로 만든 것, 이 정도이지 살 것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 그 사람들 왜 안 오느냐고 그랬더니 人件費 비싸고, 政府가 좀 支援을 해주면 좋겠는데 政府가 支援도 안해 주고 하니까 전부 없애 버리는 것이예요. 그것도 일종의 製造業인데 다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政府가 支援해 줘야죠. 稅制支援해 주

던지, 또 우리가 文化振興基金에서 일부해서 支援해 준다는지, 배부른 사람 支援해 주지 말고. 해서 이것을 한번 局長이 나서서 이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駐在官이 3個 國에 나가 있죠? 이 사람들 이제 韓國 都市에 우리가 지금 한 7兆 3,000億원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工事라든지, 自治區 豫算까지 해서 아마 한 십 몇 조원쯤 되는데 지금 우리 豫算이 현재는 取得稅, 登錄稅도 충분하게 거치고 하니까 豫算에 대해서 지금 서울市는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소위 都市經營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稅金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되고, 일부 政府에서 支援이 들어오면 그것 받고, 鐵道같은데.

그런데 나는 바로 이런 데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런 觀光事業 하나라도 서울市가 나서서 經營成果를 올리면서 觀光振興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歲入에 대한 增大方案도 한번 考慮를 함으로 해서 우리 市政도 알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方案들이 講究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駐在官들도 海外에 나가서는 하나의 세일즈맨 되어야 돼요. 지금 서울市만 세일즈 안하고 있지만 요새 新聞에 보니까 各市·道에서 대 중공에서 상품교역전 한다든지, 交易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한 地方財政을 擴充해 나가는 努力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市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觀光事業 하나라도 우리가 좀 擴充을 해서 市 財政을 돕는 그런 차원으로 發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全般的으로 이번 事業은 좀 루틴한데 이것이 전부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市長이 너무

事業計劃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 내가 듣기에는 市長은 事業計劃 報告를 안 받고, 副市長 차원에서 끝을 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적절한 기회에 市長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市長이 관심을 갖고 서울시라고 하는 綜合藝術을 자기가 그려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런 노력을 안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問題를 자꾸만 提起하고 새로운 課題들을 提示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또 다른 委員님, 李載震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業務計劃 報告를 아마 32페이지까지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既存 文化院에 대해서 1,500萬 원씩 補助金を 國費로 支援한다, 그런데 國費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市費인데 支援을 한다는 것인지 國費에서 補助금이 나와서 支援하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우리가 市立博物館 建立地가 마땅치 않다. 왜 그래도 우리가 文化財를 살리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서 해야지 그곳만은 適습하지 않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지 않고 거기에는 옛날에 마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런 瑕疵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遺構가 發掘돼서 거기 지금 建立에 상당히 支障을 招來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支障을 招來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 韓人과 黑人間의 葛藤을 解消하기



위해서 獎學金을 주고 獎學生을 招請해서 지금 韓國에 觀光을 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 서울市에서 이 일을 꼭 해야 될 일인가,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韓人과 黑人間의 葛藤을 解消하기 위해서 좋은 일인데 政府에서는 얼마만큼 지금 進行을 하고 있는 것인가, 政府에서도 하고 우리 서울市에서도 하는 것은 좋지만 이 限界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좀 여쭙어 보고 싶고,

지난 豫算編成 때 公共圖書館 建立計劃에 있어서 城東과 冠岳, 面牧 세 군데에 豫算編成을 하는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閱覽席이나 또한 豫算이나 모든 計劃建坪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業務計劃에는 똑같은 規模와 똑같은 閱覽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변경이 됐는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質問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文化藝術人을 비롯한 先烈들의 遺跡地 그러니까 거기에 標石 세우기를 만 3年 됐나요, 그 때 文化觀光局長께서 얘기해서 계속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個의 標石을 세웠는지, 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세울 計劃인지 그것을 간단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質疑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文化觀光局長입니다.

먼저 朴善童 委員님께서 觀光地에 言語疏通이 가장 問題인데 自願奉仕 觀光案内要員이 지금까지는 몇 名이고 어떻게 推進되고 있느냐 하는 質問이 계셨습니다.

自願奉仕 觀光案内要員은 今年度에 처음으로 實施할 計劃으로 지금 推進 中에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昨年度에 600年事業의 일환으로 서울學研究所에서 서울文化大學을 開催를 해서 주부들이 많이 거기에 參與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서울文化를 教育받은 사람 중에서 外國語 驅使가 가능한 사람, 또 大學生 中에서 外國語 驅使가 가능하면서 이런 文化案内를 支援하는 사람, 이런 自願奉仕者를 募集할 計劃입니다. 募集해서 言語別로 中國語랄지, 日本語랄지, 英語別로 이렇게 募集을 해서 우리 서울市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觀光 現地에서 이 사람들에게 無料로 案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交通費를 支給하는 그런 實費만 支給하도록 하는 計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金寅東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귀감으로 해서 積極的으로 또 아주 진취적으로 서울市 文化發展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報告書에 用語가 여러 가지로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國際化推進協議會는 지금 條例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世界化推進協議會로 條例를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條例가 살아 있기 때문에 條例를 어겨서 쓰기가 그래서 제가 國際化로 표기하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條例를 改正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같고 닮아서 잘 活用하는 그런 立場에서 用語를 잘 整理해서 外國語를 쓰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표현하도록 整理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都市文化發展中長期計劃은 이제 用役이 어느 정도 그런 成果가 중간단계에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專門家와 市民이 參與하는 公聽會를 開催를 해서 그 用役報告書 自體 內에 專門家の 意見이 收斂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用役을 實施하기 전에 그 方向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랄지 그런 여러 가지 意見收斂 過程을 거쳤습니다만 用役 中에 그러한 公聽會 같은 것을 거쳐서 市民意見을 광범위하게 收斂해서 計劃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觀光特性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로 觀光業界에서도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事項입니다만 지금 서울市에서는 서울觀光 文化探查의 名所를 이렇게 開發하는 그런 用役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별로 文化探訪路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開設해서 期間이 짧은 사람, 또 期間이 긴 사람이 活用할 수 있는 코스 이런 것을 開發을 하고 있고, 또 서울의 특색 있는 그런 이미지를 造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計劃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觀光商品이 없는 것도 상당히 問題가 되고 있어서 文化商品展을今年度에도 開催를 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文化商品展을 선물 같은 고유한 우리 傳統工藝品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광범위하게 서울을 案内하는 그런 어떤 弘報方法이랄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文化商品展도 계속 開催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서울을 찾아온 觀光客이 별로 불거리가 없다 그런 指摘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택시랄지 호텔에서 불친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改善하기 위해서 여

러 가지 計劃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컨대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從事者들에게 敎育을 시키고, 또 호텔 從事者들에게도 定期的으로 敎育을 시켜서 정말 親切하고, 또 정말 볼거리 있는 그런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觀光振興을 통해서 市 財政에 도움이 되는 그런 事業을 開發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시다만 앞으로 좋은 課題로 생각하고 계속 研究發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震 委員님께서 먼저 既存 文化院에 대해서 1,500萬원씩 支援을 해 주는 것은 國庫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全額 國費로 支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市立博物館 位置가 부적절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決定이 돼서 지금 工事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 個人的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工事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位置를 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고, 다만 지금 이 市立博物館을 建立하는 場所에서 遺構가 發見됐습시다만 그것은 昨年度에 이미 現場을 考古學者같은 여러 가지 專門敎授들 이런 분들을 招聘해서 현 일대를 전부 調査해서 遺構가 發見될 수 있는 場所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거기에는 市立博物館이 들어갈 建物は 전부 잘라내고 그것은 전혀 遺構에 있어서는 支障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發掘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곧 4月 中에 遺構發掘이 完了가 됩니다. 그래서 工事에는 그렇게 큰 蹉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면 工事에는 蹉跌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博物館은 어떻게 반쪽이 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計劃도 이렇

게 다근자형으로 돼서 거기에 中庭이지요. 그렇게 計劃을 했는데 그것을 하는 過程에서 遺構가 發見돼서 터파기 하는 過程에서 遺構가 發見됐기 때문에 遺構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본래 計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範圍를 擴大해서 조금 이렇게 잘라내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그 대신 다른 데에다가 展示室 같은 것을 追加로 設置를 해서 전혀 그것은 問題가 없도록 반쪽으로 잘라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李載震 委員; 글쎄, 그것이 뭐 짜깁기식으로 오죽하겠습니까 다만 실지 그 問題를 그 때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적극 反對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責任 있는 行政이 아니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나는 모른다 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거의 完成段階에 있는 博物館을 다시 옮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行政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實質적으로 그 때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절대로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확정을 결국 마무리짓고 말았습니까 다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만약에 안 짓고 다른 데 옮겨 지었다면 얼마나 좋은 博物館이고, 또 앞으로 復元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텐데 이제 遺構가 있는 곳에 다시 어떤 問題가 생겼을 때 아마 10수년이 지나면 이 博物館을 뜯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常任委에 있는 우리들이 그 자식들 뭘하고 있는 놈들이냐 하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실 알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常任委에 있는 우리 委員들이 아 그

자식들 뭘 하고 있는 놈들이냐 하는 욕을 먹을 수 있는 興件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실 알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감사합니다. 參考하겠습니다. 과거에 場所를 選定할 때 2회에 걸쳐서 정영호 박사팀 등 發掘調査를 한 후에 文化財管理局에 文化財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서 그 場所를 決定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遺構가 發見되는 것은 과거에 두 번 調査할 때 이미 發掘된 것에 대한 補完發掘作業입니다.

○李載震 委員; 그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회피적인 發言이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해서는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이 이왕에 文化財를 復元하려면 거기다 博物館을 짓지 않아도 다른 데 짓는다고 하면 좀더 멋있게 文化財를 復元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 博物館 놓고 다시 수십년 후에 復元한다고 할 때 問題가 생길 것이다, 뭐 曰可曰否 따지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問題를 머리에 깊이 認識하고 우리 公職者들은 그런 순간적으로 모든 일을 解決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절대 그것을 反對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專門家들이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는 專門家가 아니면서도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갈래로 해서 모든 사람의 輿論이 있었지만 결국 執行部에서는 그 일을 執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를 좀더 深思熟考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問題는 答辯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다음은 黑人獎學生 招請은 政府에서 할 事業으로 생각되는데 市에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政府에서도 韓·黑 갈등해소를 위해서 年間 約 50名 정도의 黑人獎學生을 招請 研修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市에서 黑人獎學生을 研修시키는 것은 셴프란시스코가 우리 서울市の 姉妹都市입니다. 그래서 都市間 交流 차원에서 뭔가 兩 都市間의 市民들이 서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年間 5名 規模로 招請 研修를 하고 있고, 이것이 숫자는 적습니다만 현지에서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黑人學生들에게 이것이 전과되어서 韓國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公共圖書館 規模는 여기 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規模와 좌석수같은 것은 아직 未定狀態로 현재 關聯區에서 實施設計가 나오면 精確한 規模가 나오리라고 생각 됩니다.

○李載震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는 600席, 650席, 1,200席 이렇게 가상 열람석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여기다도 그런 식으로라도 해 놓아야지, 언제 豫算編成할 때는 몇 백석, 몇 백석 해놓고 여기다는 일괄적으로 建坪數랄지 모든 豫算을 똑같이 만들면 혼동되지 않습니까? 業務報告에 너무 무성의하고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 精確하게 알려줘 보세요.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各 區廳에서는 하나의 가상적인 것으로서 豫算을 요구해 왔는데 그 豫算額이 각각 달랐습시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 왔는데 豫算 支援額을 어느 區는 적게 주고 어느 區는 많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豫算을 똑같이 支援하다 보니까 이제 實施設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實施設計가 나오면 精確한 것이 표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區에 따라서 豫算 配定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이 一括的으로 주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支援額이 지난번에 똑같이 編成되었습니다. 市議會에서 調整을 했습니다.

○李載震 委員; 아니죠, 今年 豫算만 20億씩 되었지 전체적인 것은 똑같지 않았죠. 그리고 地域에 따라서 敷地買入이랄지 또는 購入問題로 해서 여건이 좋은 데는 그 區에서 크게 한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委員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언젠가 豫算編成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가상으로 했으면 약간의 차이는 모르지만 전혀 근거도 없이 멋대로 業務報告를 하고 또한 豫算編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어쨌든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實施設計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圖書館뿐만이 아니고 展示室이랄지, 相談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實施設計가 나와야만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상적이라도 그것도 역시 부적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關聯區와.....

○李載震 委員; 그러면 豫算編成할 때 어떻게 그렇게 豫算을 編成했냐 그 말이죠. 우리가 豫算審議할 때는 분명히 차등하고, 모든 면이 달랐는데 또 業務報告는 이렇게 되면 뭘 가지고 基準해서 이야기하고, 뭘 가지고 基準해서 우리는 어떻게 對話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基準을 나중에 結果로는 어떻게 되든간에 基準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支援額이 똑같이 20億원으로 確定이 되어 있기 때문에.....

○李載震 委員; 3年을 해서 補助해 주는 예정액하고 또는 建坪하고 또 閱覽席하고가 전부 달랐는데 오늘은 똑같은 것으로 해 놓으니 이것이 참 우습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것 하나 나중에 주세요.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알겠습니다.

(李喆鎬 委員長, 金仁雨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仁雨; 이상으로 質疑答辯을 마치겠습니다.

1995年度 文化觀光局 業務計劃 報告의 件을 終結하겠습니다.

---

### 3. 1995年度世宗文化會館業務計劃報告의件

(12時 14分)

○委員長代理 金仁雨; 議事日程 第3項 1995年度 世宗文化會館 業務計劃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世宗文化會館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報告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입니다.

존경하는 委員 여러분께서 보살펴 주셔서今年에도 다시 業務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今年度 저희 運營方案은 市民이 찾는 公演場, 그리고 作品의 質을 높이고 施設을 늘 點檢해서 補修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仁雨; 다음은 世宗文化會館의 95年度 業務計劃 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答辯은 一括質疑와 一括答辯으로 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載震 委員; 主要業務 報告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李載震 委員입니다.

아까 施設貸館에 대해서 新聞에 1回 記載를 해서 貸館公告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도 하시고, 또 世宗文化會館 앞 광고판에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하는 것을 事前에 揭示를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問題를 改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世宗文化會館의 清掃用役費 入札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今年에는 얼마의 用役費에 入札이 되었는지 入札價格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앞으로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館長님께서 애쓰시고, 또 수고 하셔서 世宗홀의 여러 가지 대관 하는데 많은 歲入을 올리게 된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잘못되고, 부진하고 또한 얼마 후에 보면 우스울만한 그러한 契約素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쭙봤지만 지금 收入金을 몇 個月 있다가 3個月 후엔가 歲入을 잡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問題도 빨리 改善해서 1個月도 늦다 할 정도로 每週 한다든지

열흘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3個月 後에 歲入을 수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問題의 計劃과 이런 問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仁雨;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館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李載震 委員님 質疑하신 것에 대한 答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施設貸館의 新聞掲載은 두 개 新聞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는 新聞公告 文案을 저희 게시판에 붙이도록 했는데 이것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더 크게 써서 한 달 이상 그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今年度 저희 清掃用役費는 2億 8,500萬원에 落札이 되었습니다. 昨年 業體하고 다른 業體가.....

○李載震 委員; 어디죠?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제가 이름을 잊었는데 會社는 鍾路에 있고, 건설한 業體로 다행히 判명이 되어서 차질 없이 用役을 遂行하도록 指導하겠습니다.

세종홀 지난번에 收入에 대해서 한 달 단위 정도로 入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한번 檢討를 했는데 이것이 企業會計原則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종홀의 收益金を 公認會計士에 委託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監査를 받은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基準을 해서 10.51%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아야 하는 번잡함이 있고, 또 企業會計는 1年 단위로 하는 것이 상례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結論을 못 내렸습니다만.

○李載震 委員; 그 問題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별도 帳簿에 별도 通帳에 우리 世宗文化會館에 서울市에 入金했다가 얼마든지 企業會計法上에 어떤 것이 있다손치더라도, 經營的으로 물론 우수한 業體이고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갈 豫算은 아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收益金을 우리가 나누어서 줘야 할 형편에 처해 있는데 즉, 말하자면 入金を 서울市 通帳에 入金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會計士가 會計를 해서 내보내줘야지 맞는 것이지 아, 저쪽 通帳에 넣어가지고 會計監査를 한 다음에 入金이 된다 이것은 나는 도대체 理解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會計法上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企業會計이고, 一般會計이고 저는 會計法을 잘 모릅니다만 어떤 분이 내 집에서 장사해서 利益金만을 가져오는데 차라리 자기들이 무엇을 投資해서 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순수하게 전부 서울市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 豫算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 豫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할 때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 會社는 물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每月 入金を 잡아서 우리 서울市 通帳이 될 수 있는 그런 具體的인 方案을 한번 研究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제가 왜 清掃用役費 入札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어 봤느냐 하면 91年度에 3億 3,000萬원입니다. 이 隨意契約을 하니까 90年度에 3億원인데 91年度에 人件費 上昇으로해서 3億 3,000萬원을 引上해 줘야 한다 해서 3億 3,000萬원을 引上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때 公開競爭入札을 제가 質疑했을 때 安保上 안 되고, 安全上 안 되고, 뭐 高位層의 어찌고 해가지고 그것이 1년이 지나다가 결국 이렇게 公開競爭入札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鳥足之血에 불과한 金額

이지만 우리 서울市の 전체의 모든 清掃用役이랄지, 지금 현재 地下鐵이랄지 모든 데에서 이런 方法으로 是認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市民의 血稅가 節減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4年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그때 90年 이전에 3億원이 넘던 清掃用役費가 2億 8,500萬원에 入札이, 또한 그것도 정말 건설한 業體에서 이렇게 入札을 했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 서울市の 稅收가 이렇게 浪費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世宗文化會館에서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계속 이렇게 歲入을 徵收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仁雨; 더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答辯을 끝내겠습니다.

1995年度 世宗文化會館 業務報告의 件을 모두 終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31分 散會)

---

○出席委員

李喆鎬 金仁雨 蘇中天 金寅東

朴善童 梁元模 吳柳根 李永輔

鄭一龍 李載震

○專門委員

金長虎

○出席公務員

公報官 申東雨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